

위대한 '빛의 혁명' 1년…내란 종식·개혁 완수해야

이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

'국민주권의 날'…공휴일 추진

지역 시민사회, 5·18광장 집결

진상규명·사법부 개혁 등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 백서발간위원회는 이날 동구 광남로 5·18민주광장 상무대 앞에서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각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해 오월단체, 시민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이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며 위헌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년이 됐다"며 "당시 도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1980년 5월처럼 다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게임 1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청산·사회대개혁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 백서발간위원회는 이날 동구 광남로 5·18민주광장 상무대 앞에서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각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해 오월단체, 시민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이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며 위헌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년이 됐다"며 "당시

도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1980년 5월처럼 다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고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정부에 내란 세력 밭분색

통해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위대한 도민의 승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민단체 주도로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청산·사회 대개혁 시민행진'에 현직 대통령으로 동참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표를 표할 계획이었으나, 위례가 우

여태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 극복의 시간을 돌아보며 '빛의 혁명' 완수와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시, 국비 3조9497억 '역대 최대'…전남도 '10조시대'

AI·우주·에너지·미래차·SOC 등 예산 지역성장 기반 확보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각각 3조9497억원, 10조42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 국비 성과를 동시에 기록했다. AI·우주·에너지·미래차·AX·농업·문화·SOC 등 핵심 산업 전반의 재정 기반이 확장되면서, 미래 전략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광주지역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먼저 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

이는 '빛의 혁명' 예산이다. 5·18 정신이

깃든 5·18 대표 사적지인 구묘역을 국민적 추모와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빛의 혁명'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7억1000만원, 5·18 당시 희생자를 기리고 미래세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 4억4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부강한 광주' 예산도 확보됐다. 광주시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국

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

비 6억원, 규제프리 광주 AI 실증도시 실

현 용역비 5억원, AX 실증밸리 조성 296

광주 'GAIMSat-1' 우주로 향한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순천샛-1'도 선정

광주시·조선대·민간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오는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에는 광주 'GAIMSat-1'(AI 모빌리티 위성-1)과 '순천샛-1' 등 큐브위성이 우주로 향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이날 누리호 6차 발사에 탑재할 부트재위성을 선정, 발표했다.

누리호 6차 발사 부트재위성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기관(자체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위성은 3U 1기, 6U 4기, 27U 1기다. U(유닛)는 위성 크기나 단위로 큐브위성의 표

준 크기 규격을 의미한다. 1U는 가로, 세로, 높이 각 10cm인 크기다.

이 가운데 광주시 'GAIMSat-1'은

6U 위성으로는 인공지능(AI) 은보드

데이터 처리기술 확보와 자율 비행

고리즘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주도로 광주테크노파크와

조선대학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마, 주호

원, 주해워스, 주스페이스랩 등이 컨

소시엄을 구성해 제작에 참여한다.

이들 9개 기관은 이달 중 북구 월출동

987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내 도심항

공교통인 UAM 실증진흥센터에서 회

의를 갖고 누리호 6차 발사의 부팅자

위성 선정에 따른 세부 개발계획 수립 방안 등으로 논의한다.

'순천샛-1'은 3U 큐브위성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 활성 및 생태변화 분석과 순천시 관내 기업의 우주부품 성능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 'GAIMSat-1'과 함께 6U 위성으로는 우주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국가용 사이버보안 기술 및 실험을 검증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K-STAR'와 사관생도 교육 목적인 공군사관학교 'KAFASAT-2'와 재난 위험 조기탐지 및 우주·AI 인재 양성 목적인 국민대 'KMU ET-02'도 선정됐다.

27U 큐브위성은 심우주 탐사용 궤적연구를 위해 자구 저궤도에서 고도 3만6000km 지구동기궤도까지 궤도를

변경하고 달과 소행성 아포피스 활영

도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심우주탐사용 시연기'가 선정됐다.

누리호 6차 발사에는 주탑재위성으

로 초소형 군집위성 7~11호(5기)가

실린다. 또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큐

브위성 6기외에 항우연이 개발 중인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 3호와 한국

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의 '능동

제어위성'이 함께 탑재돼 총 13기가 우주로 향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건설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